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본 주와가 대제가 되어 모든 기체권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어감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빛을 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3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8월 29일 (토) 제 154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 문화전쟁 30년, 진보 측의 판정승(?)

뉴스위크, UC버클리 돔브링크 교수의 오바마 정권후 '좌클릭' 하는 미국사회 정세 분석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문화전쟁'은 동성애, 낙태, 총기보유, 크리스마스 기념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간에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을 말한다. 문화전쟁의 엔진은 헤리티지 재단, 후버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카토연구소 등 수많은 싱크 탱크들과 제리 폴웰의 '도덕적 다수', 팻 로버트슨의 '기독교연합' 등 우익기독교 조직들이고 이 엔진들에 기름을 제공한 건 미국 재벌들이었다. 스케이프, 쿼어스, 올린, 브래들리 재단 등 이른바 '4자매'로 대표되는 억만장자들의 돈주머니는 각기 연간 수백만 달러씩 천문학적 인 거액을 퍼부었다. 67-97년 30년간 스케이프 재단 총수 리처드 맬린 스케이프가 쏟아 부은 돈만 6억 달러에 달했다. 보수 진영은 장기적인 계획과 전국 규모의 조직화, 교과서와 텔레비전, 법조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 확립도 요구했다.

이후 술한 이데올로기들이 양육되고 대학과 의회, 언론사 등에는 그들이 양산해낸 정책 분석과 해법들이 거의 매일 뿌려졌다.

이 문화전쟁이 바로 레이건 시대의 1차 중흥기를 거쳐 30년만인 아들 부시 시대에 절정에 다다른 미국 보수우익 성전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오바마 정부의 집권이후, 그동안 묵묵하게 보수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문화 전쟁을 이끈 진보 진영의 입지가 더욱 다져지게 됐다. 바로 진보 진영에서 주장했던 인권이나 평등권, 정책이나 새로운 법안으로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속속들이 미국사회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UC 버클리에서 지난 30년 동안의 문화전쟁을 지켜본 존 돔브링크(John Dombrink) 교수는, 진보 진영의 판정승(?)으로 문화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3 가지 요인들을 들어 막강했던 보수 진영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준다(Are the Culture Wars Finally Over?). 다음은 뉴스위크 보도내용을 정리했다.

나는 미국 문화전쟁에 관한 내 연구를 노인들 앞에서 설명하길 좋아한다. 노인들 중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뿔적대장'이었던 스피로 애그뉴 사진을 화면에 띄웠을 때 못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닉슨은 미국의 '침묵하는 다수'에 호소했다. 1969년 11월 그는 전국에 방송되는 연설을 통해 반전 감정에 맞서 자신의 베트남 전 정책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닉슨을 비판하는 언론을 조롱하고 나선 것은 애그뉴였다. 그는 언론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수다쟁이"이라고 불렀다. 베트남전 찬성측과 반대측을 철저하게 구분 짓고 반대측을 매도하면서 이를 "긍정적인 흑백논리"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애그뉴가 이용했던 공격 방식은 오늘날 정치 토론을 지배하는 적개심, 불안감의 정서와 유사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트럼프는 누가 봐도 눈에 띈다. 일각에선 광대라는 조롱도 나온다. 초반에 반짝하고 그칠 인기일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과거부터 꾸준한 일부 유권자의 정서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닉슨을 연상케 하는 최근 한 연설에서 트럼프는 "침묵하는 다수가 우리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이 나라를 되



보수 측이 주도해왔던 문화전쟁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후보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유일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

언론인 존 헤일먼은 최근 한 토론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했다. 그들은 "트럼프는 진실을 말한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돈이 많은 걸 빼면 우리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 "자랑

스런 미국을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이유로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런 지지자들이 보기에 트럼프는 광대가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다. 비록 적개심이라는 낯은 수단에 편승했다더라 그렇다. 경제적 불안과 외교적 좌절의 시대에서 이민자를 공격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트럼프가 인기를 얻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3면으로 계속)

결혼과 출산 미뤄왔던 밀레니엄세대도 아이 낳는다!

WSJ, 1980-2000년생 결혼/출산 증가하는 인구통계학적 원인 보도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미루거나 아니면 둘 다를 미뤄왔던 밀레니얼 세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시대가 오고 있다. 결혼 및 출산 트렌드를 예측하는 리서치회사 데모그래픽인텔리전스가 내놓은 예상에 따르면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Coming Soon: Millennials Married With Children: Demographers see a tipping point in the generation's tendency to not tie the knot)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데모그래픽인텔리전스는 밀레니얼의 자녀 중 약 60%가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재 수치는 약 45%다.

샘 스티전 데모그래픽인텔리전스 사장은 "밀레니얼 세대는 결혼보다 부모 되기를 더 우선시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는 통념이 있다"며, "이제 이 세대가 2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

해 촉발됐다. 2009년 이 세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들이 20대였을 때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길었던 경기 침체에서 막 빠져나오고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은 경제적 상황이 더 나아질 때까지 출산을 미뤘다. 아기를 낳은 이들 중 대부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로 정의되는 출산율은 미국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기

2015년 출생아 59%가 결혼한 커플...향후 10년 77%까지 예상
대학교육 부모 증가...빈곤, 저연령, 낮은 교육 노동계급 출산율 저조

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전의 예측에서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정의된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고 다양성이 큰 세대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초 이들은 35세에서 50세 사이를 일컫는 X세대를 뛰어넘어 미국 노동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가 됐다.

밀레니얼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싫어한다는 고정 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보면 이들이 점점 결혼을 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부유한 부모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정 관념의 상당 부분은 환경에 의

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다 분열이 나타났다. 기혼자들의 출산율이 2010년에 다시 오르기 시작한 반면 미혼자들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했다.

이제 20대와 30대 초반이 포함될 만큼 밀레니얼 세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인구통계학적 티핑포인트에 다다르고 있다. 데모그래픽 인텔리전스의 예측에 따르면 2015년에 밀레니얼 세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중 59%가 결혼한 커플에게서 태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 비율은 향후 10년 동안 약 7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3. 박사: 목회학(D.Min)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시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BHE 정회원 | ats 정회원 | TRAC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유전자 조작 '원벽남녀' 만들 수 있다!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8면



선교 현장을 찾아서 16면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유일의 D.Miss. (선교학 박사) 과정!!

학위과정	<p>박사 선교학 박사 (D.Miss) 42학점</p> <p>석사 목회학 석사 (M.Div) 105학점</p> <p>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69학점</p> <p>선교학 석사 (MA ICS) 48학점</p> <p>100%온라인가능</p>	<p>우수한 교수진</p> <p>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p> <p>저렴한 교육비</p>
	<p>학사 신학사 (BA)</p> <p>100%온라인가능</p>	<p>전과정 유학생 SEVIS I-20 발급</p> <p>미 연방정부 장학금 및 그랜트 지원</p> <p>미 국방부 학비 지원(TA)</p> <p>미 군복 장교 지원</p> <p>GMU 학교 장학금 수여</p>

온라인 과정: 수시모집 (온라인 원서 접수 www.gm.edu)

English Track (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LA Extension Class: 주님의 영광교회내 (Tel: 213-479-4500)

가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5 년 8월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시론

"짜퉁 복음을 경계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필자가 언젠가 중국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 선교사님 안대로 중국시장을 방문하는 중에 정말 육안으로는 잘 구별할 수 없는 고가에 판매되는 명품들을 모조한 짜퉁들이 즐비한 곳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일명 '짜퉁시장'이었다.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었다. 언제부터인가 중국에서는 자동차까지 유명 브랜드의 모양을 카피하여 제작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가장 고위층들에게 인기 있는 차 중의 하나인 Audi A6를 카피한 '짜퉁 아우디 A6'에 대한 기사였다. 이 차는 중국 장화이 자동차 그룹(JAC, Jianghuai Automobile Corporation)에서 만들었는데, 앞모습이 가장 눈에 띄도록 헤드램프는 아우디 A6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카피했고, 모서리를 둥글게 굴린 라디에이터 그릴도 아우디의 것과 아주 흡사해서 가운데 '별표' 엠블럼 하나만 바꾸면 아우디 중국전용 모델로 보일 정도라고 한다. 명품생산을 위해 오랜 동안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들여 연구하여 최고의 명품을 생산해내는 회사의 노고에 비해, 손쉽게 카피하여 소비자들의 눈속임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의 가벼운 일상에 가슴을 칠 일이다.

짜퉁은 이제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즐겨 먹는 식품에도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판을 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짜퉁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너꾸리, 찐라면, 조리빵, 교촌치킨 등으로 상품명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실제 짜퉁 계란까지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 내 식품품 가격이 뛰면서 흰자위, 노른자위, 껍질까지 갑작같이 위조한 짜퉁 계란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천연 성분은 하나도 없이 화학약품을 합성해 만들어진 이 '짜퉁' 계란을 장기 섭취할 경우 대뇌 기억력 쇠퇴,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천만하며 아연 실색할 따름이다. 이뿐이 아니다. 사람도 이제는 짜퉁인 시대다. 밤살이, 민행경, 너훈아, 나훈아, 나훈아, 나훈아, 조형필, 조영필, 태지나, 태지나, 패티김, 밤살이... 대중음악계의 유명인들의 이름과 목소리, 외모, 곡 등을 카피해 살아가는 모창가수들이 유명인의 이름과 목소리와 외모를 도용하여 살아가고 있다.

짜퉁과 진품(명품)은 겉모양은 서로 유사하지만 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이다. 사도바울도 짜퉁 예수, 짜퉁 영, 짜퉁 복음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고후 11: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1:6-12)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바울은 짜퉁과 명품의 분별 기준을 오직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딤후3:15-17). 이것을 우리는 '자, 척도'의 의미인 'Canon'이라 부른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명품이요, 이 세상 문화와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상들과 잡다한 비성경적 이론들은 모두 짜퉁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세상)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짜퉁을 강하게 경계하며(골 2:2), 예수 복음을 떠난 모든 이론을 다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고후10:5) 거룩한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학적으로도 짜퉁은 항상 존재해왔음을 보게 된다. 일례로, 4세기 초에 발생한 삼위일체 논쟁이다. 짜퉁과 명품을 가리기 위해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공의회(Nicaea, 325년 5월)에서 아리우스는 '성부와 유사한 호모이우시오스(homoiouios) 성자'를 주장하였고,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동일 본질인 호모우시오스(homoiouios) 성자'를 주장하였다. 마침내 짜퉁에 불과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 받게 되었다. 유사 복음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 사이비는 본질 이 다른 것이다.

주님께서도 말씀의 특징중의 하나인 '야의 웃을 입은 이리들', 즉, 짜퉁들의 출현을 이미 예고하셨으며(마7:15-23; 24:4-5, 11, 23-24). 이것들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며(요3:5), 주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을 하고(고전12:3), 항상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며(요14:17),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갈5:22-23), 영적인 명품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명품과 짜퉁의 가장 중요한 분별 기준은 이러한 명품(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내 심장에 박동하고 있는가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운행하고 있는가!

(고후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어두운 세대에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몸일지라도 짜퉁들을 거두어 내고, 오직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된 예수 복음으로 성령의 기쁨 부으심으로 단정하는 명품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소망해 본다.

유전자 조작 '완벽남녀' 만들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게놈에디팅 기술 통한 '맞춤 아기' 가능성 찬반 논란 보도

최근 난치병 연구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놈 에디팅(Genome editing-유전체 편집 또는 유전체 교정) 기술이 완벽한 '맞춤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모의 유전 성향과는 달리 140 이상의 IQ에 좌우 시력이 2.0, 절대로 대머리가 되지 않고, 알츠하이머, 암 그리고 중풍에 걸리지 않는 완벽한 신체를 가진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 아기'의 탄생 가능성은 유전질환을 앓은 부모도 앞으로는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윤리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커버스토리를 통해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인간게놈 기술 발달로 완벽하게 편집을 통해 아기를 출생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찬반 논란을 소개해준다(Editing humanity: A new technique for manipulating genes holds great promise-but rules are needed to govern its use).

게놈(Genome)은 유전자(gene)와 유전자를 담은 염색체(chromosome) 두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 한 생명체에 담긴 유전 정보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인간은 60여조 개의 세포로 돼 있고, 각 세포핵에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이 염색체에는 유전자 비밀이 '담겨있다고 하는' DNA가 있다. DNA는 아데닌



지금은 소나 돼지 같은 가족의 유전체를 설계하는데 활용되거나 낭포성 섬유질환처럼 난치성 유전질환 치료 연구에 활용되지만, 최근 '유전적으로 완벽한 아기'의 탄생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최근 수년째 유전적으로 건강한 아기를 만드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다. 2006년 유전자 판별법으로 건강한 배아를 감별해 태어난 맞춤형 아기가 세계 최초로 태어난데 이어 최근에는 미토콘드리아 DNA에 돌연변이가 생긴 여성을 위해 이 부분이 정상인 제2의 난자를 기증받아 인공으로 수정하는 '세 부모' 체외 수정 시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정 유전자의 변이를 찾아내 족집게 치료를 하는 유전자 치료법은 본질적인 유전형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

"판도라의 상자" 게놈지도... '만병통치약', '우생학' 논란 높은 IQ, 시력, 유전병 없는 완전한 아기...지속적 연구

(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의 4개의 염기가 이중 나선 구조로 돼있다. 사람의 경우 세포마다 대략 32억 쌍의 염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바로 이 32억 쌍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돼 있는가를 밝혀내는 작업을 말한다.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는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 프로젝트가 각종 난치병인 암, 치매, 에이즈, 파킨슨 병, 당뇨병, 심지어 마약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원인규명과 유전적인 정신질환의 치료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환상이 그렁고, 유전자들은 인간 몸의 구성, 병의 발생, 행동양식과 지적 능력, 성적 선호도, 범죄 성향까지도 결정한다는 지극히 위험한 유전자 결정론 혹은 '우생학'과 같은 환상들이 그것이다.

2001년 2월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국립보건원장이 "게놈 지도를 이용하면 2020년까지 유전자 조작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가, 2004년에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꾼 이유가 바로 어쩌면 신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의 한계를 적절하게 웅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인간 즉 첨단유전자공학이 이제는 완벽한 맞춤형 아기의 탄생까지도 가능하다는 게놈 에디팅 기술의 자랑(?)을 자세하게 말해준다.

'게놈 에디팅'은 쉽게 말해서, DNA 조각을 원하는 위치에 잘랐다 붙이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다. 따라서 질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완벽한 '맞춤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른바 '유전자 가위(CRISPR-Cas9·크리스퍼)'로 불리는 게놈 에디팅은 DNA의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해 유전체를 의도적으로 자르고 붙이고 고치는 기술이다. 피가 멈추지 않는 희귀질환인 혈우병처럼 염기서열 순서가 뒤집히거나 중복, 또는 삭제된 유전자의 특정 위치를 인식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들

연변이를 치료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자신의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절단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미생물 박테리아의 면역 메커니즘에서 유래했다. 박테리아들이 이전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 일부를 자기 유전체 안에 저장해뒀다가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이 DNA 정보를 꺼내 해당 바이러스의 DNA를 찾아 자르는 방식이다. 특정 염기서열을 찾아내는 크리스퍼 부분과 찾아낸 DNA를 잘라내는 기능(Cas9)이 짝을 이룬다. 크리스퍼 부분이 표적이 되는 DNA 염기서열에 달라붙으면 DNA 절단이 곧 일어나고 이 사이에 다른 DNA 조각을 집어넣는 식이다.

에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 정자와 난자, 배아(수정된 지 8주 된 태아)를 조작하는 '생식세포 공학'은 유전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나라에서 윤리적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질병 유전자를 갖지 않은 것만 골라내 자궁에 착상시켜 탄생한 세계 최초의 '맞춤 아기'는 병든 배아를 파괴하고 건강한 배아만 골라낸다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을 빚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유전자 가위 방식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간단히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훈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99 (대 표) /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Div 학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선교사님들께 50% 특별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 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미 문화전쟁 30년, 진보 측의 판정승(?)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인구나 태도 변화 등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보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30년 간 미국 유권자를 좌우로 분열시켰던 주요 쟁점들은 갈수록 중요성을 잃어간다. 이런 변화는 미국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며,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

내 새 책 "사회적 보수주의의 황혼: 오바마 시대의 미국 문화전쟁"(The Twilight of Social Conservatism: American Culture Wars in the Obama Era)에서 나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변화가 왜 미국을 과거와 다른 곳으로 만들었는지 분석했다. 불과 10년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고문을 맡았던 칼 로브는 이 "중도우파의 나라"에서 보수 세력이 향후 수십년 간 우위를 점하리라 고 전망했다. 이후 미국은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주요쟁점 입장 변화

첫째는 미국인이 동성애자 권리나 동성결혼처럼 문화전쟁을 일으켰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동성결혼은 이제 미국 모든 주에서 합법이다. 이 변화는 관련법 개정을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이 꾸준히 증가한 것과 보조를 같이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결혼 반대는 보수 결집 효과가 뛰어난 쟁점이었다. 육체노동자부터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까지 이 쟁점으로 공화당에 끌어들이 수 있었다. 이제 공화당 선거 전략가들은 동성결혼 반대를 중요치 않게 여긴다. 심지어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언론인 러시 린치조차 동성결혼 인정을 "피할 수 없다"고 시인했을 정도다.

이는 인구와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밀레니엄 세대(18-34세)가 유권자로 성장하면서 개인의 도덕이나 정부 개입에 대한 진보적 관점이 사회 전반에서 우세해졌다.

1981년 이후 태어난 미국인 73%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밀레니엄 세대, 미혼 여성, 유색인종 유권자 등 '떠오르는 다수'는 2012년 오바마의 재선에 핵심 역할을 하면서 쟁점 사안 위주로 움직이던 레이건 시대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체했다.

미국인의 세속화

둘째 요인은 미국인의 세속화다. 제도적으로 프랑스인·영국인·독일인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던 미국인이 갈수록 세속화하고 교회를 덜 찾는다. 그에 따라 종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밀레니엄 세대가 이런 경향을 주도한다. 그들 중 35%는 종교가 없다. 신앙을 가진 미국인 역시 과거보다 훨씬 진보 성향을 띤다. 예를 들면 오늘날 미국 기독교인 가운데 과반수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진보라틴계 증가

마지막 요인은 진보 성향 라틴계 미국인의 증가다. 보수 세력은 과거

와 달리 라틴계 인구의 증가가 미국 사회의 진보화를 늦추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2012년 퓨리서베이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라틴계 미국인 50%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라틴 인구의 상당수는 밀레니엄 세대 친구들과 사고방식이 유사한 젊은이다.

지난 30년 간 보수와 진보 간의 문화전쟁을 촉발했던 주요 쟁점들은 이제 영향력이 다해간다. '비쟁점화'가 2015년 미국을 규정한다. 그런 쟁점에서 보수 세력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회복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12년 레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급증하는 인종 다양성을 받아들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떠오르는 다수'의 출현을 보여줬음에도 지난 6월 토론에 나선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닉슨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만 급급했던 모습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다. 결국 보수와 진보가 지난 30년 간 벌인 문화전쟁에서 진보측의 승리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 미뤄왔던 밀레니엄세대도 아이 낳는다!

(1면에서 계속)

또한 이 아기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31세부터의 엄마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학업을 중단하기보다 대학 교육을 마쳤을 확률이 높다.

퓨리서치센터의 킴 파커 소셜트렌드 책임자는 더 느린 속도일 수도 있지만 이와 비슷한 추세가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그녀는 "대부분의 젊은 성인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대부분은 할 것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데이터에서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음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밀레니엄들은 동거를 더욱 잘 받아들이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에 더 개방적이다.

그러나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는 25세에서 34세 사이 인구 중 약 25%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이전 세대들보다는 높은 비율이지만 밀레니엄들의 대다수는 결국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찌됐든 인구통계학자, 경제학자, 마케팅들이 부모로서의 밀레니엄 세대를 생각하는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 젊은이들을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영인 민서블'의 몬레드 머글스톤 정책애널리스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최악의 경기침체 이후 34세 미만의 부모들 중 20% 이상이 빈곤

상태였다. 이전 2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녀가 없는 젊은이 중에서는 16%만이 빈곤 상태였다.

버지니아대학교 내셔널 매리지 프로젝트의 브래드 윌콕스 소장은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난하고 나이가 어리며 교육을 덜 받은 노동 계급 여성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며 이 변화의 일부는 "밀레니엄 인구통계학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유전자 조작 '완벽남녀' 만들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유전자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일부 변화만 일으키는 방식이어서 윤리적 논란이나 대물림의 문제를 비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가능성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미국과 중국, 영국에서는 유전자 가위 기술과 산부인과 분야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오바사이언스와 같은 벤처기업까지 등장했다. 이들 그룹은 난자나 정자, 또는 시험관에서 배양된 초기 수정란에서 DNA 결함을 바로 잡아 유전질환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를 완벽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에선 신체 각 부위로 분화해 만능세포로 불리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난자나 정자를 생산하는 생식 줄기세포 단계에

서 유전자 결함을 손본 뒤 정상 난자와 정자가 생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전자 가위 기술도 완벽하지 않다. 유전자의 특정 조각을 교체하는 경우 성공률이 아직 낮고 기술을 적용한 배아의 경우 생존율이 아직 50%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10-20년 내 유전적 결함을 완벽히 제거한 인간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질환을 없애는 기술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진 잠재적 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으려면 2만 달러, 난자를 기증 받거나 대리모를 활용할 경우 10만 달러까지 치솟는다. 배아의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4천 달러 정도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방식은 아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또한 다른 과학자들은 앞으로 다

른 쪽으로 응용될 가능성을 크게 보기도 한다. 유전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눈 색깔이나 지능지수(IQ)까지 조작한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철학과 니 보스트롬 교수는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저서 '슈퍼인텔리전스'에서 아직까지 인간의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교적 쉬운 기술을 통해 인간의 지적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영화 '가타카(Gattaca)'에서는 21세기 어떤 미래에 대한 상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생학적 관점에서 계층이 나누어진다는 설정은 일반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 사회에서는 인간들이 유전자의 우수성으로 평가되고, 계층과 각 개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상류층은 열성인자를 제거하여 우수한 유전 특성만을 가지게 하여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나 최상의 인생이 부여되지만, 주인공은 자연적 방

법으로 태어난 "부적격자"다. 그는 철저한 감시체제를 속이고 결국 우주항공회사 '가타카'의 토성 탐사선에 오르게 된다. 계급이라는 것이 변형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과 계급을 결정하는 것이 자본, 권력 아닌 유전자라는 설정을 한 것이다. 유전자를 완벽하게 통제해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이 영화적 상상의 영역이지만, 인간계급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황당한 공상과학영화로만 치부할 수는 없게 된다.

결론으로, 과학의 진보와 기술의 실현은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게 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야 할 인간의 비판, 판단 능력은 매우 제한돼 많은 간극이 있다. 발전은 가속화 되지만 인간 인식은 더디게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갈수록 과학과 사회/인간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진다. 우리의 실제 미래가 '가타카'에서 그려진 것과 같은 디스토피아적 암울함이 아닌 것이 되게 하려면 광범위한 사회적,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합의 또는 동기가 필요하다.

소망 칼럼

남보다 먼저 모본이 되자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 곧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들이 먼저 교회 생활에서 모본이 되지 못하면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니 남보다 모든 면에 먼저 모본이 되라고 교훈하였다(딤후 4:11-13).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목사의 권위로 잘 가르치고 디모데의 나이 적음을 인하여 교인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등의 신앙생활에서 모본이 될 것을 권면하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가면 필라델피아 근처에 시골담치 않게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다. 이 교회는 "스잔"이라는 소녀의 꿈과 기도로 이루어졌다. 본래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먼 도시까지 교회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으로 "스잔"은 하나님께 이 마을에도 예배당이 건축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병에 걸려 죽어갔다. 얼마 후 결국 소녀가 죽고 난 후 그녀의 자리 밑에서 간절한 기도와 열망이 담겨진 편지 한 장과 그 속에 마지막 헌금 5달러가 나왔다. 이 소녀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앞 다투어 헌금을 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이 마을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어진 것이다. 어린 소녀 스잔이 신앙적 모본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를 본받아 그대로 실천하였기에 훌륭한 교회당이 건축되었던 것이다. 좋은 일은 누군가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나 교회나 내가 먼저 모본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발전이 있고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

1950년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섬에는 원숭이 20여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먹이는 주로 고구마였다. 원숭이들은 처음부터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고 그냥 먹었는데 어느 날 한 살 반짜리 어린 원숭이가 강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하나, 둘, 흉내 내기 시작했고 고구마를 씻어 먹는 행위가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정착해갔다. 고구마의 흙을 씻어서 먹는 원숭이의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자 이번에는 고지마 섬 이외 지역의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것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원숭이들도 마치 신호를 받은 듯 역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하는 것이 이토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어느 공장에 새로 부임한 신입 공장장은 품질 불량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공장이 깨끗해야 되고 서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환경이 더럽고 지저분하며 불친절한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많이 나오고 안전사고도 많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입 공장장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청소를 잘하라', '인사를 잘하라'가 아니었다. 그는 먼저 공장 안을 다니면서 버려진 휴지나 담배꽂이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주웠고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친절하게 인사를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장의 이러한 행동은 서서히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마침내 그 공장은 정말 깨끗하고 친절하며 직원들이 서로 인사 잘하고 상냥하기가 생산품 중에 불량품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모범 공장으로 변했다.

우리도 교회나 사회에서 내가 먼저 고구마를 씻어 먹었던 첫 번째 원숭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 길에서 내가 먼저 널려있는 휴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공장장처럼 본보기가 되어야겠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로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7.7cm × 11.7cm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7.7cm × 5.8cm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시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연필 같은 인생

오랜만에 연필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요즘엔 연필보다는 볼펜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digital) 매체가 연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필은 우리에게 중요한 볼펜 중 하나입니다.

연필의 총 길이는 지우개를 포함해서 고작 7.67인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연필이 가진 잠재력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연필 한 자루로 56km의 줄을 그을

수 있고, 4만5천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필 두 자루만 있으면 한 편의 장편소설을 쓸 수 있다고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연필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필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과거의 유물처럼 불필요한 존재 같이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

와 재능으로 섬겨야 할 대상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연필이 연필의 역할을 잘하려면 먼저 심을 덮고 있는 외피가 깎여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로 깎기거나 자동 연필 깎기 속으로 몸이 들어가서 깎여야 합니다. 깎이면 심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깎이는 것은 아픔입니다. 덜 깎이면 심이 무디고 너무 깎이면 심이 부러집니다. 알맞게 깎여야만 연필은 제 구실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영적으로 깎여야 합니다. 자아가 깎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여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 뿌리가 뽑히고, 분노와 교만, 쓸데없는 자존심이 깎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연필에는 조그만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우개는 연필의 한 부분입니다. 지우개는 연필이 쓴 틀린 글씨나 모양을 고쳐줍니다. 연필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고 다시 쓸 기회까지 줍니다. 그러나 연필이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고 지우개의 도움을 요청해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는 연필이 예쁜 글씨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용히 연필의 실수를 덮어줍니다. 연필과 같은 우리 인생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영원히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새로운 미래를 쓸 수 있도록 용서라는 지우개로 인생의 얼굴을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연필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가운데 박힌 심입니다. 연필의 결도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더라도 그 중심에 심이 없으면 쓸모없는 나뭇조각에 불과합니다. 심이 무너지면 일정한 굵기를 유지할 수 없고 심이 골라서 자주 부

러지면 연필의 몸은 계속 깎이는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심이 중심에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아도 제구실을 못합니다. 심의 두께와 칼라가 연필의 질과 용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연필심이 연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인 심은 내면의 세계, 즉 인격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겉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끝으로 연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필이 되어 심의 질 그리고 지우개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필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엄지와

중지 그리고 검지 사이에 쥐어져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 결실을 쓸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연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몽당연필 같은 인생이 결국 인생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필심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 다 닳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옮겨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연필이 되어 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푸 / 른 / 초 / 장

차균규 목사
(순복음 부천 교회)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숲 속에서 과학적인 사고의 늪에 빠져 인간적인 이론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 위에 이상 국가를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테크노피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무서운 자기도취에 빠져 하나님 없는 인간의 왕국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대인들은 오히려 끝없는 싸움과 불신, 점점 높아가는 범죄로 고통 받고 있으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이 종말의 세상과 함께 스스로도 멸망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 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람의 삶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바울은 "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1. 믿음의 삶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2.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적인 지식을 주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경험과 감각적 지식, 즉 눈, 코, 귀 등 육체기관을 통하여 인식된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통하여 사물을 판단하고 기술을 습득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에는 감각과 논리의 세계와는 다른 초월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대

한 이해는 계시적인 지식,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알려주신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적인 지식은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성령의 계시 없이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이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고전2:9-19).

성령의 계시 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소합니다.

깊은 신앙의 삶은 성령의 계시적인 지식에 근거합니다. 즉 믿음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깝게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성도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고 이를 회개

2. 믿음의 삶이란 꿈이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목표가 없는 믿음은 결국은 허공에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인의 삶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미래에 되어질 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에 그 참 면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목표는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삶에 초조되었습니다(롬 4:18).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이 믿음은 우리의 꿈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꿈도 있을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꿈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2.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꿈은 어떻게 우리 안에 창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씨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꿈을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경험에 의지한 꿈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허무살이 꿈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소유할 수 있고 이 꿈은 믿음과 함께 자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3.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6면으로 계속)

믿음의 삶이란? (히브리서 11장 1-6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믿음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중생한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끊임없이 입증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성령을 언제나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꿈인 것입니다.

1. 믿음과 꿈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 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꿈이 없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니까? 그것은 꿈이 없으면 아무 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 것도 믿을 수 없으면 아무 것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은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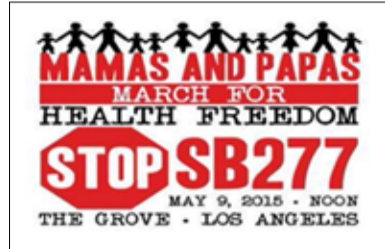
“SB277 폐지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통째로 삼키고자 그 사악한 어두운 힘의 권세를 계속 펼치고 있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선한싸움의 용사들이 속히 일어날 때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PPPA- AB1266 법안) 폐지를 위한 발의안) 외에 또 다른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서명운동이 있습니다. “SB277 폐지서명운동”으로서, 서명마감은 9월 20일 주일입니다. 9월 21일까지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B277은 어떤 법안인가?
2015년 6월 30일에 통과된 법안으로 K-12학년의 모든 공립 & 사립

“SB277 폐지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 전혀 안전하지 않으며 생명에도 위협

SB277은 언제든 어떤 종류의 백신도 추가로 더 맞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제는 250여 가지의 새로운 백신들이 유효한 안전검사도 없

의 권고가 빠르게 법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 이미 실행된 곳도 있습니다(진행 중인 발의안들 SB792 & AB1117). 미연방대법원에서는 이미 자녀들과 학부모에게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백신의 의무적 접종은 “피할 수 없이 불안정한 것 Unavoidably unsafe”이 되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백신은 상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http://www.supremecourt.gov/opinion/iopdf/09-152.pdf).

○ 학부모의 권리 박탈!
이 법안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므로 부모가 의사와 협의하여 자녀들에게 백신을 맞출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는 저희가 resource package를 보내드립니다. 교회/단체 이름과 접촉한 분의 성함 그리고 주소를 tvnext.org@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서명하기 전에 “서명방법”을 꼭 읽어주세요. 무효화 될 기회를 줄여줍니다.

○ TVNEXT 카톡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톡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tvnext.org@gmail.com으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등록해드립니다.

청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SB277 Repeal 서명운동에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sc0316@gmail.com

Q: 그리스도인이 종말에 공중 휴거한다고 하는데, 휴거는 무슨 뜻이며 성경의 어느 곳에 정확히 기록되었으며 왜 공중으로 들림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지요, 그리고 언제 일어나는지요?
-폴러톤에서 배권사

A: 휴거에 대한 4가지 질문입니다. 휴거의 뜻과 성경에 기록한 곳, 휴거의 목적과 시기인데 오늘은 지면이 좁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휴거의 뜻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없고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휴거라는 말은 영어로 Rapture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환희, 열중, 낮을 잃음이란 뜻입니다. 공중으로 끌어 올려간다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휴거를 영어로 Rapture라고 쓰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4:16-1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무덤 문이 터지며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나옵니다.

휴거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공중휴거는 확실히 있으며 목적은 어린양의 혼인잔치

여기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caught up)는 헬라어로 “알파게소 메타라”는 말인데 영어로 to snatch away, 즉 낚아챈다,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레피오(rapio)라고 번역되고 이 라틴어인 레피오(rapio)는 레피어(Rapere)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레피오란 단어에서 영어로 rapture라 씁니다.

둘째, 휴거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공중으로 끌어 올려가는 내용이 나오는 곳이 정확하게 두 곳에 나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13-18절입니다. 바울은 주님 재림시에 주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공중 휴거를 부인하나 분명히 성경에 표현되었으므로 휴거를 부인하는 것은 억지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11:11-13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곳은 적그리스도시대 환난시대 말기에 주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무덤 문이 열리며 육체가 부활되고 하늘로 올라오라(come up here)란 큰소리가 들리면서 부활한 성도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공중휴거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은 분명한 공중으로 들림 받는 내용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계11:11-12절을 보면 부활과 휴거의 장면이 헬라어에서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면 보통 미래형으로 말해야 하는데 헬라어에서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일 때는 헬라어에서는 과거형, 부정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셋째, 공중의 휴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19:6-9에 나오는데 어린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공중에서 결혼식장으로 배설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와의 결혼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휴거의 목적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특별한 장소인 공중을 결혼장소로 잡은 것입니다.

모든 공립/사립/데이케어 학생에게 10개 백신 투여하는 SB277(CA) 생명까지 위협, 개인 신앙 따른 면제 불허 · 9월21일 반대서명 마감

학교 그리고 허거된 모든 데이케어 시설의 학생들은 현재 캘리포니아 미연방정부에서 추천하는 10개씩의 백신을 다 무조건 맞도록 법적으로 의무규정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 백신주사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학교나 정부에서 부모들 몰래 우리 자녀들에게 백신을 언제든 어디서든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15년 2월에 캘리포니아 자유주의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하여 제출되어 캘리포니아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겨우 4개월 만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로 통과되어서 6월 30일에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학 쪽으로 박식하여 SB277의 법안이 얼마나 해로운 법안이지를 잘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이전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이었던 Tim Donnelly를 중심으로 SB277을 폐지시킬 서명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SB277이 법안이 되기 바로 직전, 지난 5월에는 LA와 글로브지역에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STOP SB277 행진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지요.

이 FDA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되어 지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백신 제조회사들은 아동 백신 상해조항 3.1에 의하여 1986년부터 백신에 의한 상해나 죽음으로부터의 모든 책임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상해나 죽음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의 면제는 백신제조업자들이 더 안전한 백신을 만들려는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https://vaers.hhs.gov/index).

또한 백신이란 것은 “one size fits all”처럼 한 가지 방식으로 모두에게 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런 방법은 절대로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몸이 허약한 어른들의 생명에 까지 큰 위협을 주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들은 이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5개월 동안에 4만2천건의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보고되었고, 1만건은 심각한 상태로 응급조치나 입원이 요구되었고 179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백신접종률은 무려 97.26%입니다(이것은 2.4%의 PBE와 0.19%의 의료면제를 합한 것입니다. 제한적인 가입자들은 비록 그들이 모든 백신접종을 받았더라도 총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CDPH참고).

백신의 의무적접종은 아이들에게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인접종과 모든 백신접종을 관하는 의사



○ 신앙의 자유 박탈!
개인의 신앙에 따른 면제(PEB: Personal Belief Exemptions)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건강상 극도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만 의사의 허락아래 면제됩니다.

미래에 더 추가되어질 백신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개인의 신앙에 따른 면제(PBE)가 허용되었으나) 부모들은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으며 또한 나중에는 이 권리도 제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 중에 흡스콜이나 교실수업이 없는 독립적인 스티디 프로그램에 등록된 경우는 백신에 대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leginfo.ca.gov/

어떻게 SB277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 TVNEXT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http://tvnext.org/). 각 교회, 지역마다 서명운동센터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시작해주세요. 서명운동센터를 만드신 교회/단체들에

Short-form(개인용) 청원서는 없습니다. 여러 명이 서명할 수 있는 Long-form 원서는 주문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피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청원서 주문은 Tvnext.org@gmail.com으로 교회 이름, 몇 장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청원서를 보내야 하는가?

9월 21일(월)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9월 21일보다 늦으시는 분들을 tvnext.org@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직접 보내실 주소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서명이 필요한가?

주정부 법에 의하면 유효서명이 365,000개가 필요하지만 무효화 될 수 있는 서명들을 고려하여 500,000개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명운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은 TVNEXT.org로 가시면 영어, 한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학부모들의 권리와 신앙의 권리를 또 다시 완전히 박탈시키고 우리 자녀들과 쇠약한 어른들의 건강을 죽음의 위협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백신 의무적접종이 꼭 멈추도록 남은 시간동안 힘써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엔젤레스,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추천도서



입양가족, 홍성사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일리스터 맥그래스, 성서유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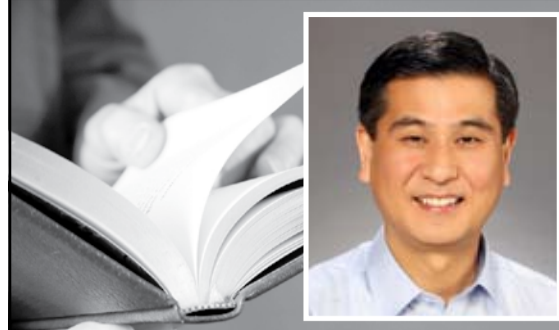
김미진 저, 규장



데이비스 캐넌 저, 국제제자훈련원



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순교의 피, 영적 거름이 되어 (1)

순교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순교자들도 죽음 앞에 분명 떨림이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강심장을 가진 성도들만 순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으로 삼았다는 입술의 고백이 죽음이란 방법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순교의 죽음 자체가 지닌 가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교한 마음이다. 어떤 핍박과 위협도 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을 때에 순교가 가능한 것이다.

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그의 겸손한 모습은 메시아인 그가 선택한 길이 결코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그는 자기를 침을 뱉으며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 게 저항하지 않았다. 자기를 때리

다.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복음의 빛을 심기 싫어하고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경고이다. 계속하여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 것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을 가르치신 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

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39절)라며 순교의 죽음을 경고하셨다.

왔다. 교회의 역사를 복음의 확장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과 순교가 따랐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복음을 전하려고 반드시 고난을 감수해야 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모든 성도의 삶이다. 예외가 없다. 다시 말해, 성도가 되는 것은 견디기 힘든 핍박과 순교를 감수해야 하는 결

설교와 순교를 통하여 오고가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스테반의 설교는 그가 복음의 핵심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의 차분한 설교는 상대로 하여금 할 말을 잃어 버리게 하였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과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은, 그리스도의 '가상철연'을 연상하게 한다. 성도가 핍박과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포기

핍박과 고난, 순교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따르는 성도의 길은 고난과 영광 함께 복음 확장엔 반드시 고난 동반...순교의 잔 마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

질문: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과 순교의 위험가운데서 출발하고 성장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는 자들에게 등을 내주었다. 수업을 뽑으려는 자들에게 뺨을 내주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였다.

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교훈이다.

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교훈이다.

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고난 없는 삶을 선택하려는 것은, 곧 복음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과 같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는 말씀의 파워를, 견디기 어려운 신앙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경험하는 것이다.

1) 교회 역사를 보면...

■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는 선지가 이사가가 예언한 고난의 종이다. 하나님이 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 고난을 당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나귀 새끼

그리스도는 핍박과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자신의 죽음이 첫 아담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순교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그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고 훈련하신 제자들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맡기신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며 진실한 전도사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다. 나아가서 16-23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

■ 교회의 핍박과 순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잘 성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직전 남기신 지상명령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의 끝을 향해 전파되는 것이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는 지금까지 이 명령에 순종하여

■ 알곡과 쭉정
초대교회의 확장이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교회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였다. 순교의 역사였다. (15면으로 계속)

가정사역 칼럼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권면들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혼에 대해 생각해보는 분들이 많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혼만 하면 삶의 어려움을 훌훌 털어버리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혼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라고 이혼을 경험한 분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한다.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15:22)고 말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밝혀주고 있다. 나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 누군가 나의 사정을 들어주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 변호사를 찾는 문제는 재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혼 전 지혜로운 선택"(Choosing Wisely Before You Divorce)이란 DVD 프로그램의 첫 과에서 한 변호사가 한 말이다.

"사람들이 이혼을 고려할 때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겁니다. 저는 변호사지만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은 가장 나중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당신에게 부부관계를 끝내라고 말할 것이며, 더 이상 배우자와 말하지 말고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보다는 상담가를 찾는 것이 훨씬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 DVD 프로그램은 종종 결혼사역Marriage Ministry나 미국 가정사역단체인 "Reconciling God's Way"와 연

결하여 사용된다).

2) 이혼의 권리보다 사랑의 책임을 생각하라.

만약 배우자가 외도(간음)를 행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록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다라도 진심으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한다면 내게 이혼할 권리가 있지만 나에게 사랑해야 할 책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이혼의 권리보다 선행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주세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하나요?" "성령이 날 인도해 주시나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다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죄인이 한 집에 모여 사는데 어찌 성격차이가 없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절대적인 성격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성격차이가 있는 커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혼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결혼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다. 배반하고 떠난 자가 용서를 구한다면 이혼할 권리보다는 용서할 책임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라.

1) 지혜롭고 경건한 상담을 받으라.

성경 잡언에서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3) 정직한 기도

"하나님,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만약 이것이 제가 변화되어야 할 문제라면 저를 변화시켜

4) 지금 어떤 상태든 결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너무 심해서, 첫사랑의 뜨거웠던 불꽃이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등등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사유들이 이혼사유서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말씀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런 이유들로 이혼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해 말하는 곳은 없다. 완전히 서로

5) 화해하려는 나의 노력에 상대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홀로서기의 수순'을 밟으라. 이혼정회복모임(DC: Divorce Care) 또는 이혼가정자녀회복모임(DCAK: Divorce Care for Kids) 참석해볼 것을 권한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책 만들어 드립니다.

타올

머그컵

각종 상패

교회/매장/기타단체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목회서신

현대 기독교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라



여승훈 목사

옛말에 "양꼬 없는 찜빵"이라는 표현이 있다. 찜빵에 양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찜빵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 쓸모없다 혹은 소용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양꼬는 무엇일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해 보았는가? 예수께 대한 신앙고백이 빠진 예배 그것은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빠진 찬양 그것은 취미로 부르는 노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없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전에 신앙고백을 하기는 했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고백에 대해 소홀해진 상태를 말한다.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신앙고백 했는데 뭘 또 다시 신앙고백을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 한다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이전보다 좋은 생활, 이전보다 나은 생활에 맞추어질 것이다. 좋은 생활을 위해서 이

렇게 하고 나의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할 것이다. 자 이번에는 양꼬 없는 찜빵 대신에 양꼬 없는 만년필을 생각해 보자. 양꼬 없는 만년필이 어떻게 되겠는가? 쓸 수가 없다. 양꼬는 만년필이 글을 쓰게 하는 동력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은 크리스천의 생활이 되게 하는 동력이다. 그러므로 예수께 대한 신앙고백을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중심이 아닌 생활 자체가 중

심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중의 하나는 성공해 보이는 사람의 말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추종을 한다는 것이다.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이자 최고 판단의 기준인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성경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최대 규모를 가진 교회로 알려진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몇년 전에 한국 기독교를 강타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다. 당시 한국 기독교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거물급(?)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이 앞 다퉈서 그 책을 친절하게 추천하기까지 하였다. 분명히 기억하라. 시대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의 권위를 앞장 세우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농사짓는 분들이 쌀 타작을 하고 나면 '겨'가 남는다. '겨'는 세 살짜리 아이가 입으로 '후'하고 붙여도 쉽게 날아가 버릴 정도로 가벼운

것이다. 성경이 계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소홀히 하고 생활 위주로 치닫는 것이 마치 바람에 나는 가벼운 '겨'와 같은 것이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세상 지혜나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확증될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부으심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초원을 걷는 듯 한 기쁨과 행복을 제공해 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은 매일 가능한 하루에도 자주하면 할수록 좋다. 성공하는 곳이 당신의 신앙의 가치 기준이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신 안에 거룩한 자존심이 있지 않은가? 성공이라면 그 앞에 어쩔 줄 몰라서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모방하고 선호하려는 소위 성공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을 당신의 거룩한 자존심으로 단호하게 물

리치라. 성공에 대한 사대주의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지 아는가?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아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다. 당신이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입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야 하고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할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어 달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말라 하라. 그리고 듣고도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그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복되게 할 것이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리더십' 8월3-7일 동유럽 선교대회, 강사 정인수 목사

제 21회 동유럽 한인선교사협의회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동유럽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인 세르비아에서 개최됐다. 동유럽 선교사들과 그 가족 등 약 300명이 모여 동유럽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략을 짜며 가족간 선교적 유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유럽 선교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원내는 강사 정인수 목사. 존재해왔다. 동유럽 신도들은 입을 모아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미신적인 형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형식적인 종교성에 매달려 살아가는 실정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폐쇄적이며

'복음의 능력, 성령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는 정인수 목사(아를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를 주 강사로 진행됐다. 정인수 목사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리더십"에 대해 강의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심혈을 기울였던 동유럽 선교지에 한인선교사들로 인해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이 감격스럽다"고 전제하고 "열악한 동유럽 선교현장에서 한인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헝가리,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코소보 등 19개 나라 선교사들이 참석했으며 동유럽 복음화를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유럽 국가들은 오랜 세월 동방 정교회 또는 로마카톨릭을 전통적인 국교로 신봉해오고 있다. 정교회와 로마카톨릭은 동유럽에서는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종교로 율법적인 강제성의 형태로

"보수신학 사수, 하나님의 역사 기대" 미주합동신대 공개강좌, 강사 이종식 총장

미주합동신학대학교(총장 이종식 박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LA 연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에서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강좌는 본교 총장인 이종식 박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이종식 박사는 "마28:18-20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제자 삼으라고 소명 받은 자들"이라

언급하며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고 복음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많은 이들이 설교를 진부하게 여기는 건 설교자들이 예측 가능한 뻔한 이야기를 전해서"라 지적하며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자신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은혜 받을



ITS주최 Business as Mission 신학 세미나에서 샘조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주제 ITS BAM신학 세미나, 강사 샘조 교수

ITS(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이승현 박사는 Business as Mission(BAM) 신학 세미나를 17일부터 21일까지 생명전교회(담임 김동일 목사)에서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인터서브 BAM 담당자이며, Center for BAM

의 공동대표인 샘조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금요일 오전 강의에서 샘조 교수는 "다양한 선교형태가 있지만 그중 삶이 중요하다"며 "미션은 라이프스타일이다. 겐 22:30 성벽 틈에 서서라는 것은 그 틈 사이에 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계는 영적 전쟁터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디가 빠

져있고 비어있는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교적인 비즈니스 현장은 문화의 현장이다.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문화 속으로, 그중에도 갈릴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곳 사람들과 문화를 접촉하셨으며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현장에 들어가려는 자들은 그곳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역하다보면 어느 정도 혼합주의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선교지의 문화 때문에 크리스천의 믿음이 오염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 때문에 선교현장에서 도망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션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며 제자공동체로서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다. 미션은 하나님나라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합동신학교 주최 공개강좌가 LA연약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강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는 모습

만큼 설교를 준비해서다. 설교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먼저 은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장은 "미주합동신학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학교다. 시작하는 만큼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신학교도 교수 4명으로 시작했다.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보수신학을 사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학교를 운영할 때 학교는 놀랍게 변모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성경은 일점일획도 분명한 말씀이라 가르치는 학교, 믿음으로 서서 앞날을 바라보는 학교,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에 서서 켈리타이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어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학교가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Advertisement for '꽃씨 심는 남자' (The Man Who Sows Seeds) by So-gang-seok. It features a book cover image and promotional text: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Price: 336,000 / 14,000 won.

Advertisement for '평화의 꽃씨' (Seeds of Peace) by So-gang-seok. It features a book cover image and promotional text: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and '평화의 꽃씨를 열어주소서'. Price: 251,000 / 10,000 won.

동부교계 기사판



미드웨스트대학교 특별장학혜택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선교사를 위한 특별장학금을 수여한다.

뉴욕원로목사회 9월 월례회
뉴욕원로목사회(회장 홍상철 목사) 9월 월례 모임이 8일(화) 오전 11시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에서 열린다.

저소득층 위한 SAT반과 리더십 세미나
가정사역기관 패밀리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KACF(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의 후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SAT반과 자기 관리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를 약 20주에 걸쳐 실시한다.

주일학교 사역자 청빙
뉴욕 오렌지버그에 위치한 은누리장로교회(담임 조문휘 목사)가 주일학교 사역자를 청빙한다.

바이블 프렌즈 풀무불 훈련 세미나
바이블 프렌즈 풀무불 훈련 세미나가 9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큐가든성신교회(담임 이재봉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실로암교회 새 담임 장성우 목사부부(왼쪽)와 전임 김종덕 목사부부가 기념촬영했다.

<10년에서 계속>
공산주의의 몰락은 이들 동유럽인들의 내면에 무언가 그들을 이끌어 줄 새로운 사상과 정신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뉴욕목사회 통일기도회 10차 준비기도회에서 이만호 목사가 파송 공포를 했으며 참석자들이 손을 들고 화답하고 있다.

뉴욕목사회 백두한라 통일기도회 9월 1-9일, 한라, 백두, 임진각 방문

뉴욕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백두한라 통일기도회 출발을 앞두고 마지막 10차 기도회 및 파송식을 가졌다.
지난 24일 컨즈성령강림교회(담임 마바울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파송식 공포를 한 이만호 목사는 "독일 통일은 동독의 라이프찌히 작은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 기도회를 한 것이 시작이었다"

뉴욕실로암교회 담임목사 은퇴-취임 23일 김종덕 목사 은퇴식, 장성우 목사 취임식

뉴욕실로암교회 김종덕 목사 은퇴식과 장성우 담임목사 취임식이 지난 23일 저녁 5시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김종덕 목사는 퇴임사에서 "자신을 참아준 교회에 감사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저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심과 아울러 영성 총전 KAPC 뉴욕노회 여름수련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이영삼 목사) 여름수련회가 8월 17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Honor's Haven Resort에서 개최됐다.
새벽예배와 저녁예배, 친교, 사모 기도회와 등산과 산책으로 등등 심과 아울러 영성이 충전되는 시간을 가졌다.



KAPC 뉴욕노회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랑의 집짓기·아동방문 및 집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페루 단기선교 마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 2015년 페루 단기선교가 지난 8월 17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총 12명의 선교팀은 17일 0시30분 JFK공항을 출발해 당일 밤은 비행기에서 지내고 17일 페루 리마공항에 도착해 현지 신학교 기숙사에 짐을 풀고 곧바로 아라우타에 위치한 001선교센터(김중원 최은실 선교사)를 방문, 본 기구가 결연한 아동들(총 83명) 중 3명의 집을 방문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for NY, NJ, and Hawaii.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A large banner at the top read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어노인팅 미주예배 컨퍼런스가 총현선교회에서 열렸다.

“소외된 자를 예배로 초대하라!”

예배찬양 사역단체 어노인팅 미주예배 컨퍼런스

한국의 예배찬양 사역단체 '어노인팅'(대표 박기범)이 20일부터 22일까지 총현선교회(담임 민중기 목사)에서 '어노인팅 미주 예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1일 저녁 7시30분에 열린 둘째 날 저녁집회는 어노인팅 찬양팀이 찬양 인도했으며 김재우 선교사가 오후 4:20~24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더텐트 파킹랏콘서트가 더클래식III 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여름밤 수놓은 수준 높은 음악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더클래식' 주제

더텐트(대표 다니엘박 목사)가 주최한 파킹랏 콘서트가 '더클래식 3'라는 주제로 22일 오후 7시 거주 영어학교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신동희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 사회로 열린 콘서트는 소프라노 클라리, 김도희, 클라리, 테너 백동희, 오위영 목사, 바리톤 권상욱 목사 등 한인커뮤니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과 오렌지카운티 첼리스트 앙상블(대표 주에스타), 그리고 색소폰 동호회인 그레이스 색소폰앙상블(지도 캄벨박)이 출연해 한여름밤 격조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이날 콘서트는 지퍼홀이나 이벨극장 등 전문공연장에서 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접하게 된 점, 그리고 OC첼리스트 앙상블의 곡 중 '아리랑'이 연주되었을 때 이날 모인 관객들이

함께 불렀을 때 관객 중에는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며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감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테너 백동희 씨는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곡과 소프라노 클라리김과 테너 오위영 목사가 'The Prayer'를 불렀을 때 공연장은 감동과 은혜의 물결로 뒤덮였다. 또한 출연자들의 무대가 마쳤을 땐 관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외치는 등 시종일관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콘서트는 6명의 성악가들이 '축배의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부른 뒤 마쳤다. 한편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의 9월 공연은 9월 19일(토) 오후 7시 '2015 CCM Rookies with TENT'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한국인인 우리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타문화권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인사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선교의 열정이 이웃과 주변으로 흘러가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배집회,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예배 인도자, 밴드, 싱어들의 파트별 강의 등 현장 중심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박기범 목사(ACT, 생수의 강선교회)와 김재우 선교사(ACT, 달라스 킹스리전 대표)가 주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또한 한-전연 주전도사와 어노인팅 찬양팀이 함께 저녁집회를 가졌다.

어노인팅은 지난 2011년부터 '어노인팅 예배캠프'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예배팀들과 함께 실제적인 노하우를 나누고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박준호 기자)

김재우 선교사는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기 위해 우물가로 갔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내용이 예배였다. 이는 소외된 자들을 예배로 초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이며 선교는 예배의 완성이다. 선교는 또한 예배에 초대받지 못한 자를 문화와 상황을 조율해 초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A에 1000개 이상의 한인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정기모임이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세계 복음화 위해 한마음 통성기도

남가주원로목사회 8월 정기모임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회장 강영창 목사) 8월 정기모임이 18일 오전 10시30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강영창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배수호 목사가 기도했으며 진광호 목사가 기도를, 그리고 이운영 목사가 '썬물과 단물'(출 15:22-2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원로목사회원들은 한일연합 목사 인도로 △초청교회를 위한 통성기도와 △조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계평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했으며 라무열 목사가 축도했다.

친교부장 흥순도 목사의 진행으로 열린 2부 순서는 김준권 목사가 건강강의를 했다. (정라: 박준호 기자)



축복의사람 박요한 전도사 찬양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제10회 이단대책 정기세미나

미주 기독교이단대책 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가 주최하는 제10회 이단대책 정기세미나가 29일(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 3401 W. 3rd St, LA)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인터넷신교회(최바울)이며 강사는 본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 ▲문의: (213)484-2574

남가주비전교회 임직예배

남가주비전교회(담임 송상현목사, 4120 W. Pico Blvd)는 30일(주) 오후 4시 권사임직예배를 갖고 안민욱, 윤자넷 집사를 시무권사로 세운다. ▲문의: (818)522-6469

사랑의선교회 일일찾집 및 공연

사랑의선교회(대표 느헤미야공 선교사)는 장애우 무료식사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찾집 및 공연을 30일(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음카페(3020 Wilshire Bl, LA)에서 실시한다. 이날 게스트로 김동일 목사(생명찬교회 담임), CCM가수 정종원 목사, 쏘이 율동팀, 헤이필드 오케스트라, 남가주한인합창단이 출연한다. 티켓은 10달러(커피 및 다과). ▲문의: (213)245-4870, 507-8870

LA참사랑교회 무료영어학교 및 예수천국초청집회

LA참사랑교회(담임 사무엘안 목사, 7가와 westmoreland)는 매 주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무료영어성경학교를, 그리고 매 주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예수천국초청집회를 갖고 있다. 한편 본교회는 반주자를 구하고 있다. ▲문의: (951)322-9410

Women to Women 콘서트

Women to Women(여성이 여성에게)에서 주최하는 두 번째 작은 콘서트가 29일(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에나하임에 있는 한민감사교회(담임 목사)에서 진행된다. ▲문의: (818)489-7706

세리토스한인교회 무료컴퓨터교실

세리토스한인교회(담임 임세봉 목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컴퓨터 초급반 강좌를 연다. 강좌는 M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법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노트 북을 개별로 준비해야 한다. ▲문의: (562)405-2806

탈렌트 정애리 권사 간증집회

늘사랑한인장로교회(담임 박원봉 목사)는 탈렌트 정애리 권사 간증 집회를 30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213)820-5784

축복의 사람 박요한 전도사 콘서트

원하트 미니스트리 주최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한 '축복의 사람' 박요한 전도사 찬양콘서트가 20일 오후 7시 이음카페(대표 김동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자로 함께한 원하트 미니스트리 피터박 목사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감사하다. 앞으로 크리스천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콘서트는 박요한 전도사가 워킹 시절 불렀던 '기대를 비웃' '축복의 사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등을 불렀으며 공연을 보러온 청중들은 박 전도사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등 시종 훈훈한 분위기속에 공연이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박요한 전도사는 "카페에서 찬양 콘서트를 하게 돼서 감사하다. 특별히 이곳에 찾아 오신 분들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for Southern California, including nam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열매교회, 남가주사망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문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드림교회, 미중앙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인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요셉선교회, 목회교회, 미주평안교회, 은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2호교회.

강원도 교계 '백두대간 햇불기도회' 열려

한반도 평화·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간구

한반도의 평화와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교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강기총)는 23일 강원도 춘천 호연체육관에서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와 30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백두대간 햇불기도회'를 갖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서부전선 포격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해소를 한목소리로 간구했다.

이 자리에서 화천군기독교총연합회장 이용호 목사는 남북통일을 위해, 춘천그리스도교회 조영호 목사는 강원도 150만 도민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햇불기도회는 도내 2000여 교회 40만명의 성도가 연합해 개최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권오서 춘천중앙감리교회 목사는 "기도회는 동계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됐다"면서 "지금 남북한이 군사적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강원도지역 기독교인들이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통한 평화적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간구했다"고 말했다.

예장 백석·대신 '통합총회' 공고

내달 14-15일...반대 측 같은 날 '맞붙총회' 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중현 목사)과 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이 통합총회 공고를 냈다. 양 교단은 지난해 12월 통합선언 총회를 개최한 이후 헌법과 규칙, 행정 등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 왔다. 그러나 예장대신 측 일부 인사들은 통합총회에 반발하며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예장백석과 대신은 최근 홈페이지, 교계 신문 등에 각 총회장과 서기, 총회준비위원장 명의로 통합총회를 공고했다. 양 교단은 다음달 14-15일 경기도 화성 리버리조트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총회'(장2:24-25)를 주제로 통합총회를 연다. 주요 안건은 통합헌법과 규정 추진, 임원 선거, 사업 계획, 예산안 등이다.

통합총회가 공식적으로 공고됐지만 통합에 부정적인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별다른 동요 없이 통합을 추진해 온 예장백석과 달리 예장대신의 경우 통합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반대시위를 예고하거나 퍼레이드에 맞서 동성애 조장 반대 국민대회를 갖는 등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에 공동대응해 왔다.

예장대신 관계자는 "원래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박종식 목사)에서 통합총회를 열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통합총회에 반대하는 일부

목회자가 총회 기간 교회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겠다고 압력을 넣어 부득이 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통합에 부정적인 인사들은 '양 교단이 개별적으로 총회를 갖고 통합을 결의한 뒤 통합총회를 개최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통합총회 안건도 헌법, 규정, 임원선거, 사업계획뿐이어서 추가 협의의 여지가 없이 교단 간 통합논의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통합총회가 열리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총회를 갖기로 했다. 대신총회 개혁위원회(대표 이은규 전 안양대 총장)는 지난 13일 경기도 안양 대신미래목회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달 14-15일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예장대신 제50회 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장대신 제50회 총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원근 목사)도 구성했다. 이들은 20일 경기도 광명 함께하는교회에서 특별기도회를 열고 차기 임원선출을 위한 공고 등 총회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시 청소년 동성애자 55명 포함 '인권실태' 보고서 발간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 동성애자의 성관계 횡수, 성관계 시 콘돔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어린이·청소년 동성애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동성애자 성관계 시 횡수 조사=국민일보가 24일 입수한 558쪽 분량의 '서울시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성애자·장애·미혼모·탈북·생활시설 등의 어린이·청소년 892명을 상대로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관계를 맺은 시기는 만 13세부터 17세까지 다양했으며, 40%가 '성관계 때 콘돔을 항상 사용한다'고 답했다. '콘돔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는 20%가 응답했다. 에이즈 검사는 8.7%만 받았다고 답했다.

◇청소년 동성애자 보호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보고서는 "동성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배타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차별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응답자 중 36%가 '동성애자 모임에 참석한다'고 답한 데이터를 근거로 "동성애자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익명성을 고려한 소통 창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녀만이 출연하는 성교육 자료는 실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아야 하지 못 한다"면서 "스스로 성소수자 여부를 숙고하는 퀘스처너리(questionary) 기간의 성소수자를 무시하는 내용이 될 수 있

인권만 부각시켰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 예방 대책이나 건전한 양성 정체성 확립 등의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 기본 자료로 쓸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지 동성애자를 옹호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영선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서울광장에서 열

청소년 동성애자 12% "성관계 경험" 조사불구

에이즈 대책보다 인권만 부르짖는 서울시

다. 서울시는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퍼뜨린다' 등을 차별발언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청소년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을 청취한 횡수도 조사했다(표 참조).

◇'인권만' 강조, 청소년 에이즈 예방 대책은 '침묵'=그러나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동성애자의

린 퀴어문화축제나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동성애 전시회 등 전염시장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중 동성애 관련 정책에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지금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동성애와 에이즈로부터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권만' 강조, 청소년 에이즈 예방 대책은 '침묵'=그러나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동성애자의

린 퀴어문화축제나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동성애 전시회 등 전염시장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중 동성애 관련 정책에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지금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동성애와 에이즈로부터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성도 10만명 서명운동"

예장합동 동성애 입법 반대 관련 기자회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1층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한국교회 성도 10만여명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해 서명했다"며 "이를 곧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지난 3-7월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예장합동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고 대전과 경기도 과

천 등에서 동성애자 보호 조항이 삽입된 성평등기본조례가 통과되는 등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과정 중 이 있다"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토대로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그와 같이 남자들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

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이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동성 결혼도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장합동 사회부장 정순행 장로, '탈(脫)동성애 인권운동가' 이요나(갈보리체출신 율교회) 목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각 교단에 '反동성애' 책자·CD 배포

동성애대책위, 1만5천세트 제작 교단별 총회 때 전달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영훈 양병희 황승원 목사)는 다음달 열리는 장로교단 등의 총회 때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CD와 책자를 배포기로 했다. 동성애대책위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동성애 조장, 반대운동은 계속됩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동성애대책위 본부장 소강석 목사는 사역보고에서 "각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이 불 수 있도록 탈동성애 사례를 담은 동영상과 책자 등 1만5000세트를 배포할 예정"이

라며 "청소년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툰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동성애는 우리 사회의 전통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특히 각 교단의 9월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동성애 조장 반대에 한목소리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된다"고 말했다.

동성애대책위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성소수자)축제 등에 반대하는 국민대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성애는 성(性) 왜곡이요, 중독이다'라는 주제로 피해사례 등을 담은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탈동성

애 지향자(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 사례 발표, 탈동성애 상담 및 보호, 상담사 양성 등도 추진한다.

동성애대책위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 내용의 삭제나 폐기,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삭제,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이후 에이즈 발생원인과 대책 및 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 청구, 동성결혼 및 생활동반자법 제정 저지, 2016년 총선 때 동성애 지지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 및 낙선·검증운동 전개, 동성애 조장 지방자치조례 폐지 및 위헌소송 제기 등의 활동도 할 방침이다.

동성애대책위 전문위원인 정선미 변호사는 이날 김조광수씨 등이 동성결혼신고를 받아들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한 비송사건과 관련해

동성결혼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신청인 서대문구청 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동성결혼이 인정되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동성애를 비판하면 처벌받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탄원서를 내고 재판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성애대책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퀴어퍼레이드'에 맞서 동성애 조장 반대 국민대회를 갖는 등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에 공동대응해 왔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A grid of 30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Churches include Galbori, Denver, Wagon, Bock, Bann, Bostun, Salut, Saesun, Siyeol, Andu, Alkansa, Angker, Elpas, Yeongsang, Kilwon, Winstun, Jujeu, Takoma, Philadelphia, Hartport, and Mjck.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5)



전호진 박사 (미안마개혁신학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수니파 중심의 ISIS
ISIS 구성원들은 주로 수니파들이다. ISIS는 시아파도 적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IS로 인하여 군사개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개입해서 중동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가 만만치 않다. 반대 이유는 이라크군의 주축이 시아파들이고 쿠르드가 주로 IS와 적극 싸우고 수니파들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제2의 이라크 사태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일찍 타임지는 시아파 종주국 이라크와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간의 갈등을 검은 뱀과 흰 뱀의 싸움으로 묘사하였다. 정확한 표현이다.

(9페이지) "아랍 민주주의: 알제리의 교훈"이라는 기사 서두이다. 아랍 혁명 혹은 아랍 스프링은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 국가들이 민주화로 갈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랍 스프링 이후 그야말로 스프링(봄)을 맞이한 나라도 하나도 없고 도리어 무서운 "겨울"이 왔다. 이집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슬람은 체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건설은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들은 노골적으로 대모와중에서도 민주주의는 알라의 적이라고 외쳤다. 젊은이들은 정치 불안 경제 불안

남에게 돌리는 버릇이 있다고 한 일본인 학자가 말하였다. 미국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것이 도리어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러나 후세인이 살아서 독재권력을 행사하였다면 쿠르드인들과 시아파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이다. 중동의 독재자들이 자기 백성을 많이 죽여도 국제사회는 응징할 방도가 없다. 시리아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6. 이슬람 과격주의 운동의 시작

"칼리프 국가"를 선언한 ISIS 작년 8월 ISIS는 시리아 다비

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칼리프를 세우는 것에 이슬람 국가 간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것은 자기 국가통치자를 칼리프로 세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12세기까지 중동의 이슬람은 가장 강한 나라에 전세계 이슬람을 대표하는 칼리프가 있었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이 몽골제국에게 정복당하면서 칼리프 제도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기독교 국가인 현재의 터키 이스탄불(구 콘스탄티노폴)을 정복하고, 그리고 전 중동을 통일하였다. 이것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무려 400년 동안 중동을 다스리는

중동국가 독재자 제거하면 도리어 내부 분열...미국이 IS에 군사개입 망설이는 이유 칼리프 국가건설 선언 IS, 전세계 이슬람 통치의도 · 이슬람 사회에 민주주의는 불가능

수니파 국가들은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를 창설하려고 한다. 얼마 전 오바마는 걸프의 수니 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하였는데, 사우디는 불참하였다. 중동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걸프동맹에 동참하려는 나라는 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오만·아랍에미리트이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독재정권 아사드를 끈질기게 지지하는 반면 서방 세계는 반군들을 지지하는데, 반군들은 온건파, 강경파, 특히 ISIS 세력이 강하여져서 반군지원에 한계를 느낀다. 아사드 독재정권이 붕괴된다고 시리아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제2의 이라크, 리비아가 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라크의 시아파와 이란은 군사, 경제로 아사드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이란 최고 군사지도자가 시리아 내전에 참여할 정도이다.

사회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란의 청년들은 이미 이슬람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한다. 튀니지아를 제외한 22개 아랍 국가들은 혁명 이후 민주화로 나가기보다는 도리어 더 무서운 혼란과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 리비아는 무정부 상태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노골적으로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가 더 낫다고 말한다. 알제리는 91년 무슬림형제단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쿠데타로 20만명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77세의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어느 서방 학자는 "잔인한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IS는 서구가 이라크에 개입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 결과이다. 연합군은 잔인한 독재자를 제거하였으나 이라크를 분열시키고 말았다. 이라크의 분열은 종파로 인한 분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슬림들은 자기 나라의 내전을 서방세계 탓으로 돌린다. 문화적으로 이슬람은 책임은

크에서 칼리프 국가건설을 선언하였다. ISIS라는 영어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의 약자이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이슬람국가로 세운다는 것이다. 혹은 영어로는 Islamic State로 표기한다. 칼리프란 무하마드의 후계자로, 종교, 정치, 군사를 통합하는 최고지도자를 말하며 이슬람 국가 전체에서 한명만 존재한다. 이슬람은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이슬람 세계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공동체 즉 움마(Umma)라고 한다. 움마는 오직 하나이다. 로마카톨릭의 교황에 비유된다. 최근 무서운 폭력을 행사하는 이슬람국가(혹은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는 다시금 칼리프가 세워지는 이슬람국가를 세우자는 것이다. IS지도자 알 바그다디는 이라크에서 스스로를 칼리프라고 선언하였다. 즉 자신들이 칼리프를 세워 전 이슬람국가를 지배한다는 사상이다. IS의 칼리프 선언에 많은 수니파 무슬림들은 지지하지만 동시에 아랍 국가지도자

강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구라파 일부까지 정복하여 무슬림들을 이주시킨다. 1990년대 코소보 사태의 원인은 이주한 무슬림들과 세르비아의 러시아정교회 신도 간의 인종과 종교 갈등이다. 이슬람 세계는 이것을 기독교 무슬림을 박해하는 큰 사건으로 부각시키고 무슬림 세계를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그러나 1차 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는 독일과 함께 패배하여 중동의 점령지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이양한다. 1924년 투르크의 케말 파샤는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고 세속적 터키공화국을 건설, 이슬람과 근대화를 병행하여 근대화된 터키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히랍정교회의 상징적 건물인 소피아 성당을 무슬림들의 예배장소로 하지 않고 관광지로 개방한다(콘스탄티노폴의 점령을 루터는 부패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급하였다).

(계속)

이메일: hjjun01@hanmail.net

(15면으로 계속)



필리핀 민다나오섬 잠보앙가

이곳은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전기가 나가는 이곳 생활에서 비가 내리는 우기철은 그나마 덜 덥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반의 안식년을 보내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온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역지에 돌아와 보니 매주 드려지는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간 것을 알고 아이들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예배에 예전처럼 많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식년

선교사들이 4년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1년은 한국에서 안식년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까지 후원해 주셨던 분들을 만나고, 교회에 찾아가 선교 보고를 하고,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고,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도 받고, 아이들에겐 한국의 문화 를 보여주고 선교지에 가져갈 짐을 챙기다보면 1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지의 상황과 현타이와 준타이가 선교지에서 공부 때문에 이번 한국 방문의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짧은 안식년 기간의 한 달 반 동안 한국에서 생활과 선교보고 시간은 저희 가정에게 유익하였고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타이 마닐라 생활

현타이가 7월 16일부터 마닐라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진 잠보앙가에서 태어나 한 번도 부모와 떨어져 생활 해본 적이 없었고, 살아 오면서 내전(이슬람 반군과 정부군의 전쟁)을 2 번이나 겪었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마닐라로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CCC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하숙을 합니다. 단체생활이지만 아침마다 Q.T. 시간과 저녁에는 기도모임을 매일 하고 있어 신앙적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마닐라로 방문한 선교 팀에서 현지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하여 현타이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현타이가 스스로 많은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새희망 학교 사역

6월 8일부터 새희망학교의 새학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60여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학교 운동장에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나무인 나라나무 두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5년전 처음 학교를 시작할 때 현타이와 준타이가 심은 묘목이 지금은 운동장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제법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무슬림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로 변해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저희 새희망학교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초등부 학생은 80여명, 중등부 학생들은 30명 정도 참석을 하며, 대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시내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차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강사: 라해목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DYNAMICS 다이나믹스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캠퍼스 전가위)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선교 현장에 찾아가서 : 멕시코 마나테로

“예수 그리스도 때 아마 무쵸!”

산 넘어 교회 오는 영혼들 위해 땀 흘리며 사역

여름철이 오면 개 교회는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사의 삶을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남가주든 단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015년 단기선교를 준비하며 교회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Youth Group Vision Trip과 날짜가 맞물려 학생과 청년들이 단기선교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없이 선교지에서 VBS를 하는 것도 무리일 것 같아 부담도 많았지만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가주든단한교회는 멕시코에 대한 아픈 기억도 있다. 2013년 1월 멕시코 까말루 지역 의료선교 길에 올랐던 김충일 목사의 사모 김옥란 사모의 순교다. 스페니시가 능통하고 치과 전문이었던 김 사모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남편 뉘까지 혼신을 다해 선교에 몰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셨는지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그를 부르셨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7월, 이번엔 본 교회 담임 김현인 목사가 단기선교 마지막 날 밤에 선교센터 내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식을 잃은 김현인 목사를 앰블런스에 태워 엔세나다에서 다시 샌디에고로 밤새 달렸다. 어쩌면 뇌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더 큰 후유증이 울수 있다는 의사에 말에 온 성도들은 릴레이 금식기도로 돌입했다. 감사하게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김 목사를 회복시켜 주셨고 1년만인 지난 7월에는 멕시코 단기선교를 위해 직접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런 많은 사연 때문인지 멕시코에 대한 남가주든단한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남다르다. 단기선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법도 하건만 여전히 올해도 멕시코로 정하고 마네아테로 소재 사랑선교원(대표 에스더 선교사/고 서진원 선교사 사모)을 향해 8월 10일 아침 19명은 힘차게 출발했다.

가깝고도 먼 멕시코...국경 검문 강화 늘 하던 대로 짐차(uhaul)를 빌려 짐을 실었다. 음식이며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 성도님들의 정성을 차곡차곡 쌓았다. 비록 청소년들이 없는 일명 'senior short mission trip'이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임에 틀림없었다. 단원들은 12인승 밴 2대에 각각 편승해 힘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선교지에 도착하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었다.

국경을 통과하려고 막 들어서는 순간에 짐차를 막아서며 옆으로 서라고 지시한다. 앞서가던 짐차 뒤를 이어 밴 두 대도 멈춰 섰다. 국경직원은 우리를 세운 이유를 들려준다. 금년 1월부터 국경검색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805 하이웨이 선상에 있는 샌이시드로 검문소에서는 짐차검

고 오다 검문을 받고 있는 차들... 무질서가 질서인 듯 느껴지는 그 검문대에 우리 짐차도 멈춰 섰다.

벌써 5년 이상 짐차를 다니던 터인 지라 차안에 품목을 묻자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음식물, 선물, 그리고 헌옷들이며 우리는 단기선교를 위해 가고 있다고.

그런데 웬일인가? 헌옷은 절대 안 된다. 금년 1월부터 '세금을 내겠다. 여기에 다 주고 가겠다'고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다. 빨리 미국 땅에다 두고 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길은 위험한 길,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헌옷 박스를 내려놓고 숨고를 겨를도 없이 다시 검문소를 향했다. 험레벌떡 되돌아온 우리를 보고 검문자는 통과 도장을 찍어주었다. 하루 사이에, 아니 몇 시간 사이에 미국과 멕시코를 4차례나 넘나들었다. 그런데 검문소를 떠나며 길을 묻자 "이 길은 한적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나라면 오늘 밤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희를 가지고 가는 것은 타킷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귀뜸해 준다. 그러나 우린 가야 했다.

사방은 캄캄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길들이다. 몇 번을 멕시코를 다녀갔지만 이 길은 처음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했다. 꼬불꼬불 산을 돌기도 하고 물가를 지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1번 프리웨이 D길은 보이질 않았다. 우리 각자의 머리는 복잡하지만 하기도 기도가 절로 나온다. 왜 이런

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선교사는 소천하셨지만 그의 사역은 에스더 서 선교사의 헌신으로 완성이 이어지고 있어 감사가 솟구쳤다.

아침 일찍 기상한 단원들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캄뵤 아모르 교회에서 어린이 초청 잔치를 가졌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준비된 활동시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설명했다. 청년들이 없어 아쉬움은 많았지만 이 장로, 소장로님을 비롯한 시니어 선생님들의 수고를 어린영혼들은 기쁘게 받아주었다. 최 장로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자 건축팀들은 날이 밝자 선교원 옆 재활원 건물을 찾아 예쁘게 페인트 공사를 시작했다. 전 집사님은 선교원 곳곳에 고장 난 전기며 지붕들을 고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이 권사를 팀장으로 일류(?) 미용사들의 미용사역이 시작됐다. 머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자르고 나면 작은 선

가운데 살면서 주의 종들의 심방을 받기 못하는 우리네 풍조와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에 우리 모두는 감격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또 다른 가정도 잊을 수 없다. 아이들이 4명인 가정이다. 맨발을 벗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해맑기만 했다. 단원들이 손목에서 복음 팔찌를 풀어 매어주니 활짝 웃으며 좋아한다. 그 가족은 교회에 오기 위해 산을 넘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산을 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저 산을 넘으면 교회지요"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니 왈카 눈물이 쏟아진다.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여과 없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La Bufadora 노방전도 19명의 단원들은 선교를 떠나기 전 훈련모임 때마다 스페니시 사역을 공부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스페니시 찬양을 배우고 복음을 배웠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라부파도라'는 그곳에 유명한 관광도시다. 그날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 단원들은 그동안 연습했던 실력을 총동원해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다. "요 땡은 아미고 게 메 아마, 메 아마..."를 힘차게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때 아마 무쵸!"를 외쳤다. 어린이들에게 Face painting을 해주기도 했다. 어떤 이는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 팀이라고 내밀기도 한다. 나이가 많아도, 찬양이 어설피도 페인팅 솜씨가 부족해도 모두가 주안에서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 이날 우리 일행 중 3년 전 단기선교에 동행했던 단원들은 한없이 고 서진원 선교사의 모습을 그리워했다.

말뚝모자에 끈지머리, 까맣게 그을린 얼굴, 그 때도 투병 중이었지만 혼신을 다해 찬양을 외치며 단원들을 이끌고 전도에 앞장서던 그 모습, 그가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번 선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 선교원은 에스더 선교사의 헌신에 의해 사역이 잘 이어지고 있었다. 감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스더 선교사, 호탕하고 씩씩하게 그곳 한인 선교사들의 '왕' 언니로 불리며 선교사들과의 교제도 이어가고 있지만 그녀에게도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도 고독도 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다. 사역의 버거움도 있다. 그러나 에스더 선교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때 아마 무쵸"를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멕시코 국경 경비강화로 3번 넘나들며 한밤중 겨우 선교지 도착 헌옷반입 안돼 구호품 나르는 일은 옛말, 선교방향 바뀌어야 할 때

문이 안된다. 것이다. 905쪽에 있는 오페이 검문소로 가야 한다는 것.

문제인 짐차만 돌아 나오면 되는 것을 단원들은 '헤어질 수 없다. 같이 가야 한다'며 짐차 뒤를 따라 다시 미국 쪽으로 입국 검문을 마치고 건너왔다. 이제 다른 검문소로 가기위해서 네비게이션을 의지하기로 했다. 네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다 보니 또다시 샌이시드로 검문소가 아닌가! 뒤돌아 나올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우리 일행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거기서 우리는 결별했다. 단원들이 탄 12인승 밴은 먼저 가기로 하고 짐차만 또다시 멕시코를 빠져나왔다.

헌옷은 안됩니다, 미국에 다시 놓고 오십시오

두 번 다시 실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운전자 김 전도사와 조수석에 앉은 필자는 초긴장 상태로 오페이 검문소를 찾았다. 이곳은 샌이시드로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마치 시장통 같은 검역대.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신고 오는 듯 한 이삿짐을 실은 짐차,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액세서리를 실은 밴들, 중고 타이어를 실

서 친절하게 알려준다. 나가면 스토리지(Storage)가 많으니 그곳에 맡겨놔다가 찾아 가란다. 정말 난감했다.

우리는 다시 미국 입국 수속을 밟고 3번째 멕시코 땅을 벗어났다. 검문소를 벗어나자 정말 곳곳에 스토리지가 있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처럼 걸리는 차량이 많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 물건을 보관할데, 오늘 길에 다시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멕시코인 한 성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의 인도를 따라 헌옷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옷 박스를 내려놓았다. 땀이 비 오듯 했지만 실 수가 없었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국경은 8시면 클로스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우린 어떻게든 이 밤에 멕시코로 가야만 했다.

훈련을 시키는 걸까? 먼저 도착한 단원들은 또 얼마나 에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저 울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 만약이 교차하는 가운데 달리고 또 달렸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멀리 틀게 이트가 보인다. "저기야, 저기! 저렇게 틀게이트를 세 번 지나면 엔세네다가 나오더라고요!" 반가움에 소리쳤다. 이렇게 달려 밤 11시가 다 됐을 때 짐차는 선교센터에 도착했다. 그 날 우리 일행은 마치 이산가족이 만난 듯 부둥켜안고 할렐루야를 외쳤다. 우리가 갔던 그 길은 바로 얼마 전에도 한인 피랍사고가 있었던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사역의 시작 사랑선교원에 도착하자 3년 전

물을 쥐어주며 기도를 따라하게 한다. 말이 유창하진 않아도, 때론 깨알글씨로 준비한 기도문을 커닝(?)하면서도 진지하게 그치지않고 복음을 전달했다.

방 한편에서는 과 집사의 한방 사역이 진행됐다.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한방 사역도 은혜가 풍만했다.

선교센터 부엌에서는 신 권사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샌드위치를 만들며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물려드는 아이들, 더 만들고 또 더 만들고...그래도 모두가 흥겹기만 했고 이런 사역들은 금요일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말씀을 사모하여 산을 넘는 영혼들...

단기선교팀은 병원센터 '자비의 집'과 사랑선교원 두 번째 교회인 비다누에바 교회 성도가정을 방문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과 함께 지낸다는 성도가정을 찾았다. 전형적인 산위에 세워진 자그마한 집. 그곳까지 물을 사서 메고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자매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다. 천국이 있고 주님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심방 팀을 위해 음료를 준비해 놓고 반가이 우리를 맞는 모습을 보며 좋은 환경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단 9:24)

미주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 세미나

일시: 2015년 9월 14일(월) 오전 10:00-오후 3:00
장소: 엘에이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요한(213)368-7991
933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남가주 한인목사회 주관으로 능력의 종 라홍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9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3시까지이며 회비 무료, 점심을 제공하오니 선착순 100명으로 초청합니다. 부디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에 걸쳐 다니엘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초청강사: 라홍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자



강사이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미국테네코 석유회사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장



연락처: (323) 708-9191
김영구 총무: (310) 404-6219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P.O.Box 610179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주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국민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일보 크리스찬헤럴드 크리스찬비전 뉴스위크